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 보건복지부 평가 ‘A’ 등급



신안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부분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13일 개원한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

2015년 5월13일 개원 장애인 거주·재활 등 서비스 제공 입소자 만족도 높고 프로그램 계획·진행·평가 잘 구축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거주·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5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운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은 전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현장평가위원들은 “관리자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관점이 긍정적이고, 직원들의 사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이 높아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져 입소자의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

다”평가했다.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흥정미 시설장은 “우리 시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과 현장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안군은 “건실한 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옹호는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안=정승호 기자

영암군, 발빠른 급식지원으로 돌봄공백 최소화

기찬 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에 간편식 급식배달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기(氣)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발빠른 급식지원에 나서 돌봄 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간편식 등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급식제공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를 반영하였으며, 식중독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오랜 집콕생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주위 위협상황 등을 매일 파악하는 일일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생활 관리 및 면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및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돌봄꾸러미 제공 등 규칙적인



생활지도와 EB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지도 등 장기화된 감염증 상황에 맞는 안전한 돌봄에 만전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군 청소년수련관 누리집(<http://www.yayouth.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061-470-6776~9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성군, 어린이 급식소에 방역물품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손소독제 등 500만원 상당 전달



장성군이 어린이 급식소에 5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군에 따르면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코로

나19 장기화로 방역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에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을 전달했다. 지난 2014년에 개소한 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42개 시설, 1400명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컨설팅과 연령별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원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린이 급식소 시설 소독 강화와 비대면 모니터링,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영양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박종영 기자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잠시멈춤’ 캠페인을 추진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운전저수지 및 서구청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잠시멈춤’ 캠페인은 복지관 전 직원과 양동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해 진행됐다. 캠페인은 제작한 현수막, 리플릿, 피켓 등을 활용해 가두행진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에게 홍보지와 위생용품 전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안부전화 및 대상자가정 방문 모니터링, 대체식 지원, 장애아동 교구 대여 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보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